

보도자료

기간 : 2019 년 9 월 18 일(수)~10 월 1 일(화) | 오프닝 : 9 월 18 일(수) 저녁 6 시

장소 : 창성동 실험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44 | www.cl-gallery.com

오픈 시간 : 매일 낮 12 시~저녁 7 시

작품 갤러리 : rooftopartist.com

서촌 옥상화가 김미경 네 번째 그림전

그림 속에 너를 숨겨놓았다



제주도 가시리 구석물당, 2018~2019년, 펜&수채, 56×77cm

서촌 옥상화가의 나무들

- 김미경 네 번째 개인전, '그림 속에 너를 숨겨놓았다' 열려 -

-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촌 창성동실험실에서 -

옥상에 올라 서촌의 풍광을 담아낸 펜화 작품들로 '서촌 옥상화가'라는 이름을 얻은 김미경(59) 작가가 네번째 전시회 '그림 속에 너를 숨겨놓았다'를 연다.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종로구 '갤러리 창성동 실험실'.

전시회에는 2017년 가을부터 2019년 여름까지 2년여에 걸쳐 그린 70여 점의 그림들이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나무다. 서촌 일대 건물 옥상에서 바라본 인왕산과 동네 풍경에서 출발한 김 작가는 동네 곳곳에서 피고 자라나는 꽃과 풀에 집중했다가 이번엔 나무로 시선을 옮겼다. 처음에 서촌 풍경을 그릴 때만 해도 그림 한 귀퉁이에 엑스트라처럼 자리잡았던 나무들이 주역이 된 것은, 김 작가가 지난해 초 제주도의 중산간마을 가시리에서 만난 큰 동백나무 '구석물당'이 계기가 됐다. 제주어로 성황당을 뜻하는 구석물당 나무는 폭력과 학살과 전쟁으로 마음이 갈갈이 찢긴 가시리 사람들을 위로해주며 수백년동안 마을을 지켜오고 있었다. 제주도의 동백나무에 매료된 김 작가는 지난 2년간 서촌 집 앞 느티나무 뿐 아니라 전남 강진, 경북 경주·포항, 충북 괴산, 강원도 강릉 그리고 딸이 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난 나무들에게서도 사람들을 보듬고 지켜주는 '성황당' 같은 존재감을 느꼈다. 나무야말로 나이가 들면서 더 근사해지고, 인간세계의 일을 다 짐작하면서도 말이 없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친구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김 작가는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나를 자리매김하는 게 아니라, 이 멋진 나무들의 친구로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이번 전시회의 대표작은 <제주도 가시리 구석물당>과 <오늘도 걷는다 3>이다. 나무 연작의 출발점이 된 <제주도 가시리 구석물당>은 구불구불한 가지와 검은 현무암 위에 꽃잎이 점점이 떨어진 모습을 애잔하게 표현했다. 슬픔을 머금은 풍경임에도 낙화의 자태가 너무 곱기에, 모진 세월을 견디며 아름다움을 버려낸 동백나무의 강인함이 전해진다.

플라타나스 가지가 드리워진 서촌 거리를 그린 <오늘도 걷는다 3>은 작가의 첫 전시회에 등장했던 <오늘도 걷는다 1, 2>의 2019년 버전이다. 세 작품 모두 경복궁 서쪽 영추문 앞에 앉아서 그린 것인데, 동네 풍경과 걸어 다니는 전투경찰들의 모습이 도드라졌던 전작들과 달리 <오늘도 걷는다 3>은 길거리를 휘감아 도는 나무들에 초점을 맞췄다. 1, 2를 그렸던 똑같은 자리에 4년 만에 다시 화구를 가지고 와 앉았더니 나무들의 넉넉한 품새가 새롭게 눈에 들어와 한층 열린 시선으로 풍경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번 전시회는 또한 작가의 다음 작업을 살짝 맛볼 수 있는 예고편의 성격도 지닌다. 연작 작업 중인 춤 그림과 제주 돌담 작품들이 함께 선보인다.

옥상에서 그린 ‘서촌옥상도’를 선보인 첫 전시회 ‘서촌 오후 4시’(2015년 2월), 서촌 안팎에 피어난 꽃을 좇아갔던 두 번째 전시회 ‘서촌꽃밭’(2015년 11월), 서촌 풍경과 세태를 담은 세 번째 전시회 ‘좋아서’(2017년 10월)에 이어 이번 전시회에서는 자연과 삶에 대한 작가의 좀 더 넓고 깊어진 인식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회와 같은 이름의 책 <그림 속에 너를 숨겨놓았다>(2018년·한겨레출판)에서도 종이와 펜, 몸과 춤이 직교하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풀어낸 바 있다.

전시회가 열리는 창성동실험실에서 가까운 ‘역사책방’(02-733-8348)에서는 ‘서촌옥상도2’(2014년작), ‘오늘도 걷는다2’(2014년작), ‘옥인동 47번지’(2014~2017년작) 등 김 작가의 초기작품 10여 점을 볼 수 있는 전시회도 열리고 있어 함께 둘러보면 좋을 듯하다. 이번 전시회에 맞춰 오픈하는 김작가의 홈페이지 rooftopartist.com에서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소개된다.

전시 기간 : 2019년 9월 18일(수)~2019년 10월 1일(화)

오프닝 : 9월 18일(수) 저녁 6시

장소 : 창성동 실험실 (서울 종로구 창성동 144)

www.cl-gallery.com

문의 및 안내

작품 갤러리 : www.rooftopartist.com

페이스북 : www.facebook.com/meekyung.kim.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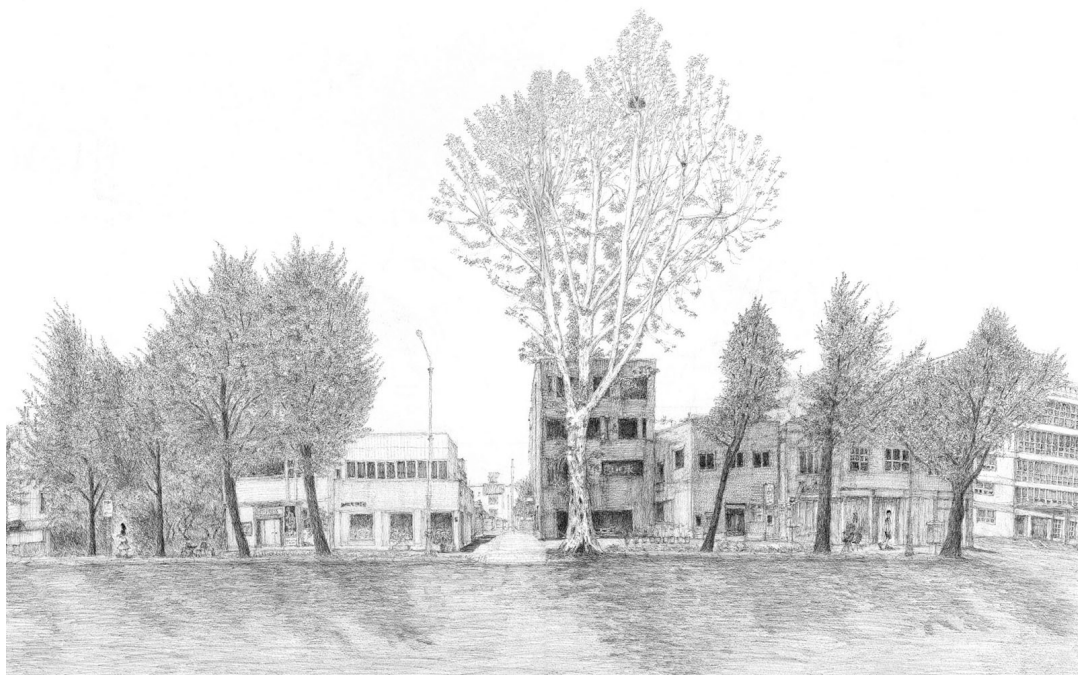
Email : artpub4u@gmail.com

● 김미경(Kim, Meekyung)



길거리와 옥상에서 서춘 풍경을 펜으로 그리는 작가. '서춘 옥상화가'로 불린다. 2012년부터 3차례 참여연대 아카데미 그림교실 단체전에 참여했고,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첫 개인 전시회 '서춘 오후 4시', 2015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두 번째 전시회 '서춘 꽃밭', 2017년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세 번째 전시회 '좋아서'를 열었다. 1960년 대구 생. <한겨레> 신문 등에서 20여 년간 기자생활을 했다. 2014년부터 전업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 대표작품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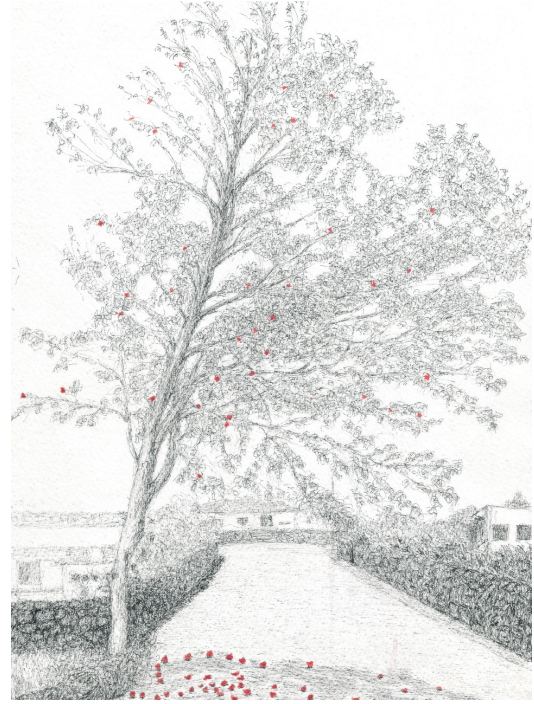
오늘도 걷는다3, 2019, 70×116cm, 펜



제주도 가시리 구석물당, 2018~2019, 56×77cm, 펜&수채



인왕산 소나무3, 2019, 61×46cm, 펜



제주 동백마을2, 2019, 36×26cm, 펜&수채



제주 동백마을 돌담, 2019, 26×36cm, 펜